

$\frac{5}{7}M - 7$
 $\frac{3}{7}M - 14$
 $\frac{1}{7}M = -3$

$\frac{5}{7}M - 7$
 $\frac{3}{7}K - 14$
 $\frac{1}{7}T = -3$

2월 14일

- 당신을 꺾으려면, 당신을 더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 ※ 공통 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 ○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17~20쪽

燃尽文庫 언어추론컨텐츠팀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편의 글이나 책이 가지는 표면적인 구조는 선형적이다. 그러나 글의 내적 의미 관계를 살펴보면 비선형적인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다.

텍스트의 구조는 대체로 세 개의 층위가 있다. 미시 구조는 문장 수준에서 분석하는 최하위 구조로 개별적인 명제나 정보의 항목이 연결되는 방식을 대상으로 한다. 거시 구조는 글의 구조를 아이디어의 논리적 관계에서 찾고자 하는 것으로 문단에 제시된 복잡한 명제나 개념들이 주제를 향해 연결되는 방식에 중점을 둔다. 최상위 구조는 여러 문단들이 종합되어 이루어진 전체로서의 텍스트 전반적인 조직 원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미시 구조와 거시 구조는 서로 상대적 개념이어서 순환적 성격을 보인다.

설명적 담화의 거시적 구성 유형에 대한 이론이나 의견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집 구조, ㉡인과 구조, ㉢문제-해결 구조, ㉣비교-대조 구조의 네 가지로 나눈다. 수집 유형은 의미를 묶어주는 공통 개념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개념이나 생각을 관련짓는 방식이다. 인과 유형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인과 관계는 선후성, 상관성, 비허위성을 만족시키는 관계로 이해된다. 문제 해결 유형은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인데, 구성 명제들 사이에 인과 관계라는 조직적 요소가 내포되는 것이 특징이다. 비교-대조 유형은 정보들 간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지니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상호 관련적으로 전개되는 방식이다.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전략 중 도해 조직자 전략과 구조 표지어 찾기가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도해 조직자는 개념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시각적 도구이다. 도해 조직자 전략은 글을 읽으며 도해 조직자를 통해 텍스트의 문자의 나열 속 정보를 시각적인 표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한편, 구조 표지어는 화제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지는 않으면서 담화에서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명제들 사이의 관계를 명백히 알려주는 단어들을 말한다. 독자는 구조 표지어를 파악하여 글의 구조를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구조 표지어는 글의 형식이 아닌 내용과 관련된다.
- ㉡ 글의 최상위 구조를 파악하면 미시구조와 거시구조를 파악하게 된다.
- ㉢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선형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 텍스트의 미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거시 구조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 구조 표지어를 파악하는 것은 도해 조직자의 내용을 채우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다음 글을 ㉠~㉤로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기름 유출은 주로 유조선이 기름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된다. ㉡ 이는 유조선의 노후화로 인한 경우도 있고, 다른 선박 또는 암초와의 충돌 사고로 인한 경우도 있다. ㉢ 기름 유출로 인해 주위의 김 양식장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고기들이 폐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희귀한 새들이 오염된 고기를 먹고 죽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 만약 기름이 유출되면 오일 펜스를 신속히 설치하여 전파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 ㉠ ㉠은 기름 유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은 기름 유출을 일으키는 두 가지 요인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은 기름 유출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은 기름 유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은 기름 유출 이후의 여러 대처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보기>는 어떤 교사가 독서 지도를 한 후 기록한 일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생들에게 독해 전 글의 내용을 대강 설명해 주고 관련된 배경 지식을 상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식을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명확히 하여 종이에 직접 그려 보도록 지도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독해 능력이 대체적으로 향상되었으나, 흥미 부진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고, 배경 지식 때문에 오히려 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글의 구조 표지어를 근거로 텍스트 속 정보와 정보와의 관계를 파악하게 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상화하는 연습을 병행하게 하자 문제가 해결되었다.

- ㉠ 배경 지식을 정리하는 데에 도해 조직자가 사용되었다.
- ㉡ 배경 지식을 떠올려 독해 능력이 향상된 학생들은 흥미 부진을 겪었을 것이다.
- ㉢ 구조 표지어 찾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 ㉣ 배경 지식을 떠올리는 전략은 독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니다.
- ㉤ 도해 조직자 전략과 구조 표지어 찾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지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대 이집트의 군주가 파라오이고, 러시아의 군주가 차르인 것처럼, 일본의 군주는 덴노이다. 초대 진무 덴노 이래 2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 황실이 지속되었다는 만세일계의 개념은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 통설이며, 현실적으로는 1300여년 전 다이카 개신을 전후적 군주제의 시작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조정은 중국 당의 제도를 본받아 통치조직을 정비하여 나라시대부터 헤이안시대까지 일본 전국을 200년간 통치하였다.

하지만 헤이안시대 중엽부터 덴노 중심의 조정 통치 원칙은 무너졌고, 장원제도를 바탕으로 한 봉건제가 시작되었다. 명목상으로 군주제 조정은 실존하였으나 이는 장식물에 불과했고,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 후지와라 가문이 섭정과 관백을 통하여, 태정대신 등이 덴노를 마음대로 즉위시키거나 폐위시키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후 장원영주들과 무사들 간의 다툼은 점차 격화되었다. 그들은 미나모토 가문과 다이라 가문의 양대 세력으로 연합하여 자신들만의 입장에 알맞는 덴노나 상황을 자기편으로 하였고, 이러한 대전쟁이 호겐제이의 난이었다. 이 시기 ㉡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가마쿠라 막부를 창설하였으나, 그는 군주제에 대한 정치적 관념적 예속을 단절할 수 없었고, 도리어 다이라 가문 정권에 대한 비판과 대항적 측면에서 신국사상이나 황실승배를 고대적 군주제의 형태로 부활시켜서 전개하였다.

가마쿠라 막부는 200년을 채우지 못하고 멸망했다. 이후 일본 열도에 두 명의 덴노가 존재하며 남북조의 항쟁이 이어지는 등 혼란한 시대가 지속되었다. 항쟁은 교토에 근거지를 둔 무로마치 막부의 ㉢ 아시카가 요시미츠 대에서야 끝나게 된다. 항쟁을 거치며 교토의 황가는 쇠퇴했기에, 요시미츠에게 의지만 있다면 단지 형제로만 잔존하던 군주제를 ㉣ 구축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었을 것이다. 비록 그에게 덴노 권위에 대한 예속은 전혀 없었지만, 그는 군주제를 유지시켰고, 오히려 그 내부로 들어가 태상법황이 되고자 하였다. 이는 그가 특별한 신성함(성, 聖)과 불가침성의 권력(속, 俗) 모두를 원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봉건적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장군 스스로가 덴노화하는 것이 더욱 빠른 길이었던 현실 속에서, 전통적인 덴노의 상징적 권위는 재생산되었다.

무로마치 막부 말기 전국시대에 이르러 혼란은 다시 시작되었다. 신분 질서와 통치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덴노의 권위는 잊혀져갔다. 이 시기의 일본을 최종적으로 장악한 ㉤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 막부를 열었다. 덴노에게 충성하는 봉건적 질서가 탄생한 당시의 군주제는 정부 지배의 정당화에 이용되었다. 에도막부는 덴노가 실권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덴노의 역할은 명목상 역할에 한정되었다. 이후 근대화 시기에 이르러 덴노는 잠시 부분적으로 실권을 쥐기도 하였으나,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일본은 상징적 군주제로 되돌아갔다.

* 막부: 전근대 일본의 정부 형태를 일컫는 말.

(나)

2016년 8월 8일, 덴노 아키히토는 생전 퇴위와 관련된 연설 「기분 표명」을 TV를 통해 직접 발표했다. 아키히토의 발표는 일본 내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중요했던 것은 퇴위 의사의 표명만이 아니라 연설의 정식 명칭인 「상징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덴노 폐하의 말씀」이 보여 주듯 덴노가 직접 「상징」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는데 있었다. 그동안 수동적으로 전후 헌법하의 상징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던 직무를 덴노 본인이 직접 문제 제기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생전퇴위는 근대 이래의 군주제가 규정하고 있는 종신 군주제를 수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징군주제하의 덴노가 어떠한 해야 하는가라는 의미를 재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현행 평화헌법 제정 과정에서 ‘상징’이란 표현은 어떻게 삽입되었고, 이후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었는가? GHQ*에서 개헌에 관한 작업을 담당했던 리처드 폴의 회상에 따르면, 상징이라는 말은 영국이 자유로운 연합을 정한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 전문에서 따온 표현으로, 입헌군주제 모델이 염두된 표현이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권위와 권력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혹자는 그 두 부분의 균형을 지키고 구분을 막연히 두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요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한편, GHQ를 통해 일본을 직접 통치한 미국의 입장도 참고할 만하다. 더글러스 맥아더는 “덴노를 배제한다면 일본은 와해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즉, 그들은 일본을 통치하기 위해 ‘사회적 군주’로서 덴노라는 상징성이 필요했으며, 그를 단순히 상징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놓아 어떠한 정치적 결정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로 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상징으로서 덴노를 설명하는 논의는 영미식의 루트만이 아니라 일본 국내의 연원도 갖는다. 전쟁보다 훨씬 이전, 메이지 헌법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군주는 국권의 초상”으로 이해되어왔고, 이후 다이쇼 데모크라시 전 기간에 걸쳐서까지 제기된 덴노 기관설은 덴노를 일종의 ‘기관’으로 파악했는데, 이는 이른바 ‘국체’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다.

* GHQ: 태평양전쟁 패전 후 일본을 통치한 연합군 사령부.

4.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일본 덴노 가문은 언제부터 존재하였고 전국 군주제는 언제부터 확립되었는가?
- ② 일본 역사에서 주요 막부 체제로는 무엇이 있고, 막부 체제 종말 이후 어떤 역사가 이어졌는가?
- ③ 일본의 패전 이후 메이지 헌법은 누구에 의해 평화헌법으로 개정되었는가?
- ④ 일본에서 덴노가 두 명 존재했던 시기는 언제이고, 이는 어떻게 해소되었는가?
- ⑤ 일본 덴노의 존재와 민주주의 간의 괴리를 해소시킨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가?

5. 다음은 (가)를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래를 읽고 맞으면 ○, 틀리면 ×표시를 하시오.	
판단할 내용	답
나라 시대까지만 해도 덴노는 일본의 직접 통치자였지만 헤이안 시대 중엽에는 황권의 신성함과 실제적 권력 사이의 분화가 발생하였다.	○ ①
황실에 대한 숭배나 덴노에 대한 찬양 문화는 헤이안 시대 중엽에 이르러 축소되었으나 가마쿠라막부 시대에 이르러 다시 확대되었다.	× ②
봉건제 하에서의 주군으로서의 덴노의 역할은 에도막부 시기에 이르러 탄생하였으나, 그 모습은 헤이안시대부터 꾸준히 관찰된다.	○ ③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봉건적 질서 내의 권력자의 입장에서 덴노를 이용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치 권력의 유동성에 따른 권력유지를 위해 덴노를 이용했다.	× ④
덴노의 세속적 권력은 일본 근대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근대화를 계기로 그 권한이 회복되었다.	× ⑤

6.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저도 80세를 넘어 체력적인 면 등에서 다양한 제약을 느끼기도 하고, 최근 몇 년간 덴노로서 스스로 행보를 돌아봄에 본인이 지나온 길과 직무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덴노 역시 고령화 된 경우 어떠한 방식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덴노라는 입장에서 현재의 황실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삼가면서, 나 개인으로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중략) 이미 80세를 넘어, 다행히 건강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점점 진행되는 신체의 쇠약함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와 같이 전신전령으로 상징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아키히토 덴노, 「기분 표명」 -

- ① ‘직무에 관해 생각’했다는 표현을 통해 상징군주제가 변화하지 않는 개념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황실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평화헌법의 상징군주제를 존중한 발언이다.
- ③ 통칭인 ‘기분 표명’은 덴노의 생전 퇴위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표현이다.
- ④ ‘상징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 상징군주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 ⑤ 이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는 권위와 권력의 이분법을 분명히 한 사례에 해당한다.

7. (가)의 ㉠~㉣과 (나)의 [영국], [미국], [일본]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추구한 ‘성’과 ‘속’은 ㉠의 집권 시기의 군주제에서 이원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 ② [미국]이 군주제를 유지시킨 목적과 ㉡, ㉢이 군주제를 유지시킨 목적은 유사성을 갖는다.
- ③ ㉢이 추구한 ‘성’과 ‘속’은 각각 [영국]의 ‘권위’와 ‘권력’에 대응된다.
- ④ ㉢이 구상한 군주제는 ‘권위’만 있고 ‘권력’은 없는 군주상으로 이해된다.
- ⑤ [미국]의 군주제 유지에 대한 입장은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피트킨은 정치적 대표에 관한 그의 고전적 저서에서 타인을 대신하여 대리하는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현시로서의 대표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이를 묘사적 대표와 상징적 대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후자의 경우 전자와 달리 무언가를 대표한다는 행위가 반드시 대표되는 자의 동의 혹은 선거와 같은 과정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① 고대 및 중세의 덴노는 일관되게 상징적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 ② 막부의 통치자는 대리적 행위자로서의 대표와 현시로서의 대표 모두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③ 덴노의 상징이라는 개념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및 욕망의 개현과 무관하지 않다.
- ④ 메이지 헌법에서 평화헌법으로의 변화는 덴노의 지위가 ‘통치자에서 상징으로’ 수정된 것이다.
- ⑤ 전후 일본의 상징군주제가 단순히 비정치적 군주상에 기반한다는 생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9. ㉠의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군대의 역할은 적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것에 있다.
- ② 그의 이론은 연역의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 ③ 신뢰가 구축한 연대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 ④ 정치인은 강력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프랑스는 독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방공호를 구축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라늄 원자핵에 중성자가 조사되면 가벼운 원소들과 여러 개의 중성자로 쪼개질 수 있다. 이를 핵분열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중성자가 계속해서 다른 우라늄을 분열하도록 하게 하여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면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 열로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생성된다. 이를 원자력 발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핵분열 결과 나온 중성자는 속력이 매우 빠르다. 고속 중성자는 우라늄에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원자로에서는 감속재와 흡수재를 사용한다. 감속재는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적절히 줄여 연쇄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흡수재는 핵에 충돌하는 중성자를 흡수함으로써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 이외에도 냉각재는 노심*의 과열로 인한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원자로를 구성하는 부품들 사이를 통과해 흐르며 핵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운반한다.

소련에서 개발된 흑연감속 비동경수 압력관형 원자로(RBMK)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로보다 저렴하고 개발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이 원자로는 감속재로 흑연을,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원자로이다. 이 때 물은 열을 받아 기화하여 증기가 되어 터빈을 돌리며, 중성자를 흡수하거나, 흑연과 더불어 추가 감속을 일으켜 핵분열을 방해한다. 하지만 RBMK는 이 때문에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원자로의 출력 상승이 다시 원자로의 출력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RBMK 방식의 어느 원자로는 스스로 발전한 전기를 이용하여 냉각수 펌프를 작동시키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원자로의 작동이 멈출 경우, 냉각수가 유입되지 않을 수 있었다. 비상용 디젤 발전기의 가동까지는 1분 이상이 소모되었기에, 회전하던 터빈의 관성에 의한 발전만으로 그 1분간 펌프의 지속적 작동이 가능한지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자로 관리자는 원자로의 출력 저하 상태 재현을 위해 제어봉을 삽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 원자로 출력은 당초 계획의 1/10 이하로 ㉠ 급격히 떨어졌고, 당황한 관리자는 다시 제어봉을 빼 목표했던 출력을 맞추려고 했다. 이는 ㉡ 원자로 내부의 중성자 및 제논 분포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어봉을 뺐지만 ㉢ 낮아진 출력을 계획된 출력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실험은 시작되었고, 터빈 가동은 중단되었다. 줄어든 냉각수 공급과 함께, 원자로 출력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제어봉을 전부 삽입했지만, 이는 오히려 원자로 출력을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렇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체르노빌의 비극은 발생했다.

* 노심 : 원자로에서 핵분열 반응이 발생하는 장소.

1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자로의 감속재는 핵분열 반응을 억제한다.
- ② 우라늄이 핵분열하기 위해서는 중성자가 필요하다.
- ③ 중성자의 속력이 느릴수록 핵분열 반응은 활성화된다.
- ④ RBMK의 터빈이 멈출 경우 노심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 ⑤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로는 RBMK보다 가격이 낮고 안정적이다.

11. RBMK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흑연은 중성자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 ② 냉각재와 감속재로 다른 물질을 사용한다.
- ③ 별도의 비상 발전 장치를 두는 경우도 있다.
- ④ 물은 원자로의 손상을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⑤ 핵분열이 중단되어도 일정 시간동안 발전은 계속된다.

12.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감속재로 흑연이 아닌 물을 사용한다.
나. 노심에 공급되는 물의 양을 감소시킨다.
다. 연료로 우라늄이 아닌 안정된 원소를 사용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1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235는 연쇄 반응 등을 거쳐 제논-135로 된다. 제논-135는 불안정하여 중성자를 흡수하여 제논-136이 되거나 일정 확률로 다시 붕괴하여 세슘-135로 된다. 제논-135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제논-135가 중성자를 흡수하는 속도는 빨라진다.
- (나) 원자로의 흡수재는 보통 제어봉에 매달려 있다. 그런데 RBMK의 제어봉의 흡수재인 붕소 아래에는 감속재 흑연이 매달려 있다. 즉, 제어봉이 삽입되기 위해 하강하는 과정에서 감속재가 먼저 작용하는 것이다. 체르노빌 사고 발생 직전 당시 제어봉 하단의 흑연은 노심 상단과 닿아 있었다.
- (다) RBMK의 제어봉은 다른 방식의 원전에 비해 가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다.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더라도 제어봉은 천천히 움직이며 완전히 삽입될 때까지는 30초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 ① ㉠의 속도는 축적된 제논-135가 모두 세슘-135로 붕괴하는 속도보다 빨랐을 것이다.
- ② ㉡으로 인해 노심의 하단보다 상단에 많은 양의 중성자가 축적되어 있었을 것이다.
- ③ ㉢이 발생한 이유는 농도가 높아진 제논-135가 반응에 필요한 중성자를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④ ㉣은 의도와 다르게 감속재인 흑연이 핵분열을 억제하던 물을 밀어내고 먼저 삽입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 ⑤ ㉣의 속도가 빨랐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막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맹이론은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이 외부의 위협과 권력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맺는 협력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틀이다. 국가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생존과 편익 등의 보상을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거나 견제하며,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국제 질서와 권력 구도의 변화를 이해하는 핵심 단서로서 기능한다.

동맹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세력균형론은 국제관계에서 특정 국가가 압도적으로 강대해져 패권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은 자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적 균형 전략이나 동맹·협력을 통한 외적 균형 전략을 구사한다고 본다. 또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을 ‘체제 속에서의 생존’으로 규정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상호 견제 전략을 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편승이론은 세력균형론이 현실, 특히 약소국의 처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국가가 장기적 균형보다는 단기적 생존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들로서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선택에 의존하는 편승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즉 편승이론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견제하기보다는 그 편에 서서 생존 보장이나 이익 확보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방편에 그치지 않고, 강대국의 패권적 행위에 편승하여 경제적·영토적 보상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적 계산이자,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성과를 노리는 전략적 행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월트는 편승이론이 단기적 안전만 강조하고 장기적 위협을 간과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강대국에 편승하면 당장은 안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위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이중 버림 위협은 강대국이 비용 부담이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로 인해 동맹국을 버릴 가능성을 뜻한다. 또한 끌려감 위협은 강대국의 공세적 행동이나 모험주의에 휘말려 동맹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동반자로 끌려 들어가 역으로 보복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결국 월트에게 있어 편승이론은 단기적 이익을 좇기 위해 장기적인 위협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 위의 이론들의 한계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기존 세력균형론이 가진 단점을 보완해 비판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월트는 위협 균형론이라는 이론을 제시한다. 그는 국가가 택하는 균형 전략의 기준이 단순한 국력의 크기가 아니라, 각 국가가 체감하는 ‘위협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는 인구·경제력·군사력 등 총체적 힘뿐 아니라, 지리적 근접성, 상대국의 공격 능력, 그리고 공격 의도와 같은 위협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맹을 형성하거나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위협 요소가 높은 대상을 견제하며 안보와 경제적 이익 등의 편익을 얻기 위해 국가들은 서로 동맹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견제할 수 있다.

14.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편승이론은 국가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가정하에 약소국이 강대국에 편승하는 선택을 한다고 주장한다.
- ② 위협균형론은 국가들이 인접한 공격 의도를 지닌 국가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동맹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③ 편승이론은 국가가 단기적 성과를 포기하고 강대국에 편승해 안정을 노리는 전략적 행위를 실행한다고 주장한다.
- ④ 위협균형론은 특정 국가가 압도적으로 강대해져 패권을 추구할 경우 이에 대항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⑤ 편승이론은 위협균형론과 같이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은 여러 가지 보상을 얻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거나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편승: 가

1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력균형론은 편승이론과 달리 국가를 생존과 편익 등의 보상을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거나 견제하는 존재라고 보는 한계가 있다.
- ② 편승이론이 제시하는 선택 방안은 강대국 간의 분쟁 속 원치 않는 내적균형 전략을 취하게 되는 이중 버림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③ 편승이론은 세력균형론과 달리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의 합리적 행동 방안을 하나로 한정하여 제시해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④ 세력균형론과 편승이론은 모두 추후 위협균형론의 숙고를 통해 자신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 ⑤ 세력균형론과 편승이론은 모두 약소국을 장기적 생존을 고려하지 않는 존재로 가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16. 밑줄을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대하자, 유럽의 국가들은 미국 등의 다른 강대국과 협력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결성하여 소련의 힘을 견제하고자 했다. 반면 동유럽의 여러 국가는 소련의 압박과 패권적 행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피하기 위해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에 의해 계속적인 압박에 위협을 느낀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NATO에 가입 신청을 넣었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군사적 보복을 받았다.

- ① 소련의 힘을 견제하고자 NATO를 결성한 것은 강대국의 패권 추구를 막고자 하는 세력균형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겠군.
- ② NATO의 결성은 당장의 단기적 생존을 얻기 위하여 미국의 선택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편승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겠군.
- ③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소련의 위협에 굴복하여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참여한 것은 편승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겠군.
- ④ 러시아의 계속적인 압박에 위협을 받자 NATO에 가입 신청을 넣은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위협균형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겠군.
- ⑤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 신청을 넣자 즉각적인 보복을 받았다는 것은 끌려감 보복 현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군.
1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 연극은 주인공의 독백으로 끝을 맺었다.
- ② 그는 상자에 끈을 여러 겹으로 두르고 단단히 매듭을 맺었다.
- ③ 그는 점점 평정을 되찾은 듯 차분하게 결론을 맺듯 말했다.
- ④ 그들은 친구 소개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 ⑤ 그녀는 목이 메어서 말끝을 못 맺고 울음을 터트렸다.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고영웅 호걸들이 초한전쟁 들어 보소
절인지용 부질없고 순민심(順民心)이 으뜸이라
한패공*의 백만대병 구리산 아래 십면매복
많은 군사 둘러싸고 초패왕*을 잡으랴 제
천하병마 도원수는 표모결식 한천이라
장대에 높이 앉아 천병만마 호령할 제
오강은 일천 리요 팽성은 오백 리라
거리거리 북병이오 두루두루 매복이라
간계 많은 이좌거는 패왕을 유인하고
셈 잘 하는 장자방은 계명산 추야월에
옥통소를 슬피 불어 팔천제자 해산할 제*
때는 마침 어느 때뇨 구월 삼경 깊은 밤에
하늘 높고 달 밝은데 외기러기 슬피 울어 객의 수심 돋우고
변방만리 죽을 땅에 잠 못 드는 저 군사야

너의 패왕 힘이 다해 장중에 죽을 테라
호생오사하는 마음 사람마다 있건마는
너희는 어이하여 죽길 저리 즐기느냐
철갑을 고쳐 입고 날랜 칼을 빼어 드니
천금같이 중한 몸이 전장검흔이 되겠구나
오읍하여 나오면서 신세자탄 하는 말이
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를 올리면서
강동으로 가겠더니 불행히 패망하니
어이 낯을 들고 부모님을 다시 뵈며 초강 백성 어이 보리
잠 못 이워 생각하니 팔 년 전쟁 다 지나고
적막사창 빈방 위에 너희 부모 장탄수십 어느 누구라 알아주리
㉠은하수 오작교는 일 년 한번 보건마는
너희는 어이하여 좋은 연분을 못 보느냐
초나라 장졸들이 고향 소식 들어 보소
남쪽 골짜기 푸른 풀이 몇 번이나 돋았으며
거울에 비친 백발을 바라보던 부모님은
문에 기대 바라보며 독수공방 처자들은
겨울산의 잎 떨어는 찬바람에 새옷 지어 넣어 두고
날마다 기다릴 제 허구한 긴긴날에
이마 우에다 손을 얹고 뒤편 올라 바라다가 망부석이 되겠구나
집이라고 들어가니 어린 자식 철없이
젖 달라 짓어 울고 철난 자식 애비 불러
밤낮없이 슬피 우니 어미 간장이 다 썩는구나
남산 아래 긴 밭은 어느 장부 갈아 주며
이웃집에 빚은 술은 누구를 대하여 권할 손가
㉡앞 뒤 돌아 바라보니 구리산이 적병이라
한왕이 관대하여 항복한 군사들은 죽이지 않겠지만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데로만 갈거나

- 작자 미상, 「초한가」 -

- *한패공: 훗날 한나라 고조가 되는 유방.
*초패왕: 초나라 병사들을 이끌던 항우.
*장자방은 ~ 해산할 제: 장자방이 옥통소를 불며 항복한 병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하여, 항우 군대의 사기를 꺾었다는 고사.

(나)

삼가 문안드립니다. 이러한 때 애형께서는 기력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요? 봄철이 반 넘어 지나고 보니 ㉠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한 아픔이 더욱 새로우리라 여겨집니다.

인하여 생각해 보니 금번 남한산성의 포위에서 벗어나면서 만 번 죽을 고비에서 한 번 살아남을 얻어 임금과 나라를 보전 하여 함께 옛 도움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불행 중 다행이라 말할 만합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동방의 예의지국이 정백이 양을 끌고 간 탄식을 면치 못하였으니 우리가 임금의 뜻을 받들어 보좌함에 불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우가 청나라 진영으로부터 뒤늦게 돌아와 보니 형의 인척이신 청음 김상헌 대감과, 동계 정은 대감은 척화의 영수로서 임금께서 적진의 포위를 벗어나 ㉢종사를 보존하고 평안하게 환도한 것을 문안조차 하지 않고 나란히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척화의 정론은 위로는 명나라 조정을 위하고 아래로는 사대부의 여론을 붙든 것으로 천지의 떳떳한 길이자 고금에 통하는 의리

입니다. 그것을 **정론으로 삼는 것**은 비록 삼척동자라 해도 모두 아는 바입니다. 우리 또한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이미 조선의 신하이니 우리 임금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중국 조정만을 위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혐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만력 황제가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 준 은덕은 우리나라의 군신이라면 누구든 감격하여 받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준망의 즈음에 이르게 된다면 어찌 지난날 **재조의 은덕**만을 위해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나서겠습니까?

이런진대 동방의 나라일을 맡은 신하가 반드시 명나라를 위해 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의리에 당당하고 선현의 가르침과도 실로 부합합니다. 하지만 김상헌, 정온 두 대감은 도리어 이러한 의리에 어두워 나라를 보전한 뒤에 한갓 척화의 정론만을 숭상하니 의리로 중도를 붙드는 것이 과연 어렵다 하겠습니까. 퍼런 칼날을 밟을 수는 있지만 중용은 능히 할 수가 없다는 논의가 진실로 헛말이 아닙니다.

- 최명길, 「여장계곡서」 -

1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화의 방식을 활용하여, 청자에게 특정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청자와 위기에 처한 대상을 비교하고 있다.
- ③ (가)는 가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화자가 주목한 세태에 대한 다층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의인화된 관념을 활용하여, 대상에서 촉발된 정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필자가 제시한 대안의 우월함을 부각하고 있다.

19. 다음에 따라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에서는 죽음의 불가피성과 그것이 삶에 부여하는 의미가, (나)에서는 삶과 죽음의 가치를 비교하는 당대 인물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 ① (가)의 ‘초패왕’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나)의 글쓴이는 ‘우리나라’의 멸망을 부각하고 있군.
- ② (가)의 ‘독수공방 처자’와 (나)의 ‘재조의 은덕’은 모두 죽음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의 ‘호생오사하는 마음’은 죽음이 삶에 부여하는 의미로, (나)의 척화를 ‘정론으로 삼는 것’은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군.
- ④ (가)의 ‘망부석이 되’겠다는 것은 죽음이 가져올 비극적인 결과를, (나)의 ‘이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것은 삶을 선택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가)의 ‘장졸들’이 평생의 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김상헌’과 달리 죽음의 불가피성을 넘어서려 한 것이군.

2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초나라 장졸’들을 ‘일 년 일차 보’는 대상과 비교하여 상황의 암울함을 강조하는 진술이다.
- ② ㉡: ‘한왕’이 결심과 다른 상황에 있음을 제시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는 진술이다.
- ③ ㉢: ‘효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회고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심정을 나타내는 진술이다.
- ④ ㉣: ‘정백이 양을 끌고 간’ 고사를 인용하여 글쓴이가 안타깝게 여길 만한 일이 발생했음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⑤ ㉤: 주관적 진술과 함께 화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건을 알려주는 진술이다.

21. (나)의 필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론’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충’을 실현하고자 한다.
- ② ‘중용’을 통해 ‘퍼런 칼날을 밟’으면 피해가 없다고 본다.
- ③ 스스로를 지키는 것 역시 ‘명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말한다.
- ④ ‘정론’의 의미를 밝히되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삼지 않는다.
- ⑤ 타인의 선택을 예시로 들어 수행해야 마땅한 일을 언급한다.

22. (나)와 아래의 필자의 입장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사람들은 저들의 세력이 한창 강하니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명분과 의리가 지극히 중대하니 이를 범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고 본다. 의리를 저버려 끝내 위태와 멸망을 면치 못할 바에야, 차라리 바른 도를 지키며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 그러나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어서 망하기를 기다리자는 뜻은 아니다. 일이 바르게 풀리면 백성의 마음이 기쁘고, 백성의 마음이 기쁘면 나라의 근본이 든든해진다.

—<보 기>—

- ㄱ. ‘중국 조정’은 명나라여야 한다.
- ㄴ. 정론은 명분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 ㄷ. ‘나라를 보전’하여 ‘바른 도’를 보전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끼 치레 볼작시면 다홍색 비단 두루마기에 초록색 비단 깃을 달아, 자주색 비단 동정 짓고 구름무늬의 비단 옷고름에 주먹만한 벼에 옥으로 만든 관자의 열두 꿩지깃으로 장식한 풍채가 대장부와 다를쏜가? 까투리 치장 둘러보니 잔누비 줄누비를 푹푹이 잘게 누벼 상하 의복 갖추어 맵시 좋은 머리꽃이, 곱게 빗어 단장하고 열두 딸 아홉 아들 스물하나 자식들을 앞세우고 뒤세우고 어서 가자 쉬이 가자.

아래 평전 발머리에 줄줄이 들어서서 너는 이 골 줍고 나는 저 골 줍고 알알이 콩을 주워 먹으니 인간의 고량진미를 바라지 않는도다. 하늘이 만물을 내며 모두에게 복록을 주었으니, 한 번 배불리 먹는 것도 내 운수에 달려 있도다. 허기를 채우려니 그 무엇을 못 먹으랴.

점점이 주워 들어가니 콩 한 알 덩그렇게 놓였거늘 장끼란 놈 크게 혹하여,

“내 복으로 먹어 보세.”

까투리 이른 말이,

“애개, 그 콩 먹지 마소. ㉠ 들어온 자취 나간 자취, 비로 활활 쓴 듯하고 입으로 활활 분 듯하니, 분명히 사람 흔적이다.”

장끼란 놈 이른 말이,

“너의 말이 미련하다. 이때를 이룬진댄 동지선달 엄동이라. 첩첩이 쌓인 눈이 곳곳에 덮여 있으니, 일천 산에 새들 나는 것도 끊어지고 일만 길에 인적도 보이지 않도다. 사람의 자취, 어디 있을쏜가? ㉡ 간밤에 꿈을 꾸니 황학을 비껴 타고 청천으로 솟아올라 옥황상제께 문안했노라. 옥황상제께서 하교 하시어 산림처사에 봉하고 만석 들어가는 곡식 창고의 콩 한 섬을 상으로 주셨으니, 오늘 이 콩 한 알 그 아니 반가운가?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마련해 주기 쉽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마련해 주기 쉬운 법이라. 하물며 굶던 차에 오늘 아침 먹지 전이라.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이 마다하랴?”

까투리 이른 말이,

“그 꿈이야 좋거니와 내 꿈으로 볼작시면 모두 흉몽 아닌 것이 없었노라. 어젯밤 ㉢ 이경 초에 한 품으로 잠을 자고 찬바람 일어나며 태아검처럼 잘 드는 칼로 빗 좋은 자네 머리 텅텅 베어 떨어지니 자네 죽을 흉몽이라. 부디 그 콩 먹지 마소.”

장끼란 놈 이른 말이,

“그 꿈 좋다. ㉣ 해몽을 해 보자. 춘당대 알성과의 문무방에 이름이 올라 계수나무로 만든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춘풍이 흩날리며 낙수교 위 청운으로 입신양명할 꿈이라. 과거 시험에나 힘써 보자.”

까투리 이른 말이,

“삼경 초에 꿈을 꾸니 천군들이 무쇠 가마솥에 자네 머리 덩뻑 썬워 만경창과 깊은 연못에 아주 덩뻑 빠졌거늘, 내 혼자 그 가에 슬피 서서 통곡하니 이 아니 흉몽인가?”

장끼란 놈 이른 말이,

“그 꿈이 더욱 좋다. 명나라가 중흥하려 구원병을 청하거든, 이내 몸이 선봉 되어 주변의 질투를 무릅쓰고 압록강 건너가서 중원의 항복을 받고 황하에서 병기를 씻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수록 대장 되오리다.”

까투리 이른 말이,

“㉤ 삼경 아래 꿈을 꾸니 어른이 당상 위에 앉아 있고 자손이 잔치할 때 스물두 폭 베 차일을 사방으로 고였거늘 세 발 장대 고치다가 우지끈 뚝뚝 부러지며 이내 머리 자네 머리 덮였으니 답답한 일 볼 꿈이오. 오경 초에 꿈을 꾸니 많은 작은 별이 하늘에 가득한데 태을성과 삼태성은 자미성을 둘러 있고, 건우성 직녀성은 은하수를 둘렀는데, 별 한 점이 뚝 떨어져 자네 앞에 놓였으니 자네 장성 아닐런가? 삼국 전쟁으로 요란할 때 축한의 모사 제갈량도 오장원에서 운명할 때 장성이 떨어졌다 하니, 이로 봐도 불길하다.”

(중략)

까투리 할 말 없어 물러나니 장끼란 놈 거동 보소.

콩 어르며 들어갈 때, 열두 장목 아홉 살것을 좌르륵 퍼뜨리고 꼬박꼬박 고개 쪼아 조금조금 걸어 들어 빗날 같은 부리로 들입다 짹 집으니 두릅뻔 통기면서 머리에 넘어지는 소리, 박랑사에서 쇠 방망이로 진시황의 둘째 수레 때리는 듯, 아방궁 대들보를 짹 빼어 지르는 듯, 와지끈 뚝뚝 꺾꺾 푸드덕 변통 없이 치었구나.

까투리의 거동 보소. 뉘엿머리 펼치고 상하 평전 자갈밭에 떼굴떼굴 구르다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에에 통곡하는 말이,

“독한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위에는 이로운 법이라. 내가 한 말 들었으면 저런 변을 당할쏜가?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초한 재앙은 어이하리?”

장끼란 놈 이른 말이,

“에라 이년, 요란하다. 미련을 두면 좋은 기회를 잃게 되는 법이니라. 네 탓 내 탓 부질없다. 범에 물려 죽을 재앙을 미리 알면 산에 갈 사람 누가 있으며, 물에 빠져 죽을 재앙을 미리 알면 배에 탈 사람 누가 있으랴? 쓸데없는 잡담 다 던져 버리고, 이 애야 곁으로 바빠 오거라. 죽고 사는 것은 맥으로 안다 하니, 맥이나 짚어 봐 다오.”

까투리 맥을 보더니,

“비위맥이 움직이고 중맥이 점차 없어지고 신맥이 유별하고 간맥이 저늘하고 태충맥이 끊어지고 명맥이 이미 끊어졌네.”

- 작자 미상, 「장끼전」 -

2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대화를 통해 인물 간 위계가 역전됨을 보여 주고 있다.
- ㉡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 ㉤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인물 간 논쟁이 벌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2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장끼는 까투리와 함께 흔쾌한 생활을 했다.
- ② 까투리는 장끼를 살릴 방법에 의심을 품는다.
- ③ 장끼는 자신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까투리에게서 찾는다.
- ④ 까투리는 장끼를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장끼는 후회하지 않는다.
- ⑤ 장끼와 까투리의 교류는 장끼의 행동에 대한 논쟁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2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콩’을 사람이 놓은 흔적을 근거로, 그것이 꿩 사냥을 위해 사람이 놓은 미끼라고 생각하여, ‘콩’을 먹으려는 꿩을 만류하는 진술이다.
- ② ㉡: 이전 까투리의 주장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부정하여 콩이 꿩 사냥을 위한 미끼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자신이 꾸민 꿈을 언급하는 진술이다.
- ③ ㉢: 장끼가 꾸민 꿈이 길몽이 아닌 흉몽일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 해석의 근거로 자신이 꾸민 꿈과 그 해몽을 제시하는 진술이다.
- ④ ㉣: 장끼가 같은 꿈에 대해 까투리와는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발언으로, 장끼와 까투리의 문제 상황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진술이다.
- ⑤ ㉤: 까투리가 장끼의 해몽에 반박하기 위해 그 꿈의 뒷부분과 자신이 꾸민 다른 꿈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여 제시하는 진술이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장끼전」의 서술자는 일관되게 장끼에 대한 하대어를 사용한다. 장끼의 포부가 조선 후기 지식인의 욕망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생존 자원인 콩을 자기합리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현실감 없는 허세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편, 꿩 부부의 대화 구조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보편성 역시 보여 준다.

- ① 장끼가 함정에 걸리는 장면은 욕망이 자기합리화로 이어질 때의 결과를 보여 주는군.
- ② 장끼가 변하지 않는 허영 때문에 까투리의 경고를 무시하는 구조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보편성을 보여 주는군.
- ③ 장끼 부부의 반복되는 대화에서 서술자가 한 편만을 드는 모습은 장끼의 현실감 없는 모습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군.
- ④ 장끼가 파국에 이른 후 부질없다고 말하는 태도는 조선 후기 지식인이 생존보다 과거 급제와 공을 중시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군.
- ⑤ 인간의 ‘고량진미’와 미끼로 쓰인 ‘콩 한 알’의 차이를 통해 작품이 쓰여진 시대의 욕망이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군.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남한의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현실에 동화되지 못하고 이질감을 느끼던 진수는 취재를 위해 판문점에 가게 된다. 판문점에 도착해 북한의 젊은 여기자를 만난 진수는 서로의 체제가 표방하는 이념에 대하여 논쟁을 벌인다.

순간 그녀는 발끈했다.

“신념이 문제지요. ㉠ 자유는 허풍선과 같은 허황한 것일 수가 없어요. 자유의 진가는 그 사회 나름의 일정한 도덕적 규범과 인간적 품위가 결부가 되어서 비로소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지요. 자유 이전에 정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이용만 당해요. 빛 좋은 개살구지요. 우리 모랄의 기본이 뭇인지 아세요? 우리 민족의 나갈 바 큰 방향이예요. 개인은 거기 제대로 껴어들어 있어야만 해요. 그 속에서 자유야요. 결국 이념이 문제겠군요. 당신의 생각은 나태 그것이야요. 타락되고 싶다는 말밖에, 놀고 싶다는 말밖에 아니야요. 자유에 대한 옳은 인식도 없고, 일정한 이념도 없고, 있는 것은 그날 그날의 동물적인 회썬연 자기밖에 없어요. 비트적거리고 주저앉고 싶은 자기…….”

“그럼 자기를 팽개치고 무엇이 남아요. 놀고 싶고 적당히 나쁜 짓 하고 싶은 자유란 최고급이지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것을 크낙한 관용으로써 받아드릴 수 있는 사회가 있어요. 부피와 융통이 있는. 그런 것이 적당히 용서가 되면서도 전체로 균형이 잡혀있는. 참, 어느 것이 허풍선이나 따질까요? 자기조차 팽개쳐 버린 이념덩이가 허풍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자기를…….”

“천만에, 자기가 없이 어떻게 ㉡ 이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왜 팽개쳐요. 완벽하고 명료한 자기는 이념에 밀받침 되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흐늘흐늘하고 비트적거리는 자기의 검불만 남아요. 당신의 자유에 대한 견해는 썩어 빠진 거야요. 한마디로 썩어 빠진 거야요. 썩 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가……. 어마아,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있지요, 있구말구,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부피와 깊이는 한이 없어요. 당신들은 사람도 어떤 효율의 데이터로만 간주하고 있어요. 당신들 사회에서 옳다 그르다 하는 그 기준이 대개 짐작이 되는데, 일면적인 거지요.”

“아니야요. 다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다급해 있다뿐이지요. 원인은 그것이야요.”

“참, 도스토옙스키나 셰익스피어를 아시요? 어떻게 생각하시요?”

“알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약간 자신을 회화화하여 놓고 필요 이상으로 비장한 몸짓을 하는 도시 소시민의 사변 철학적이고, 셰익스피어는…… 시민 사회가 싹트기 시작하는 사회의 여러 모를 부피있게 부각시켰어요.”

“무서운 추상이로군.”

“아니야요. 본질이 그래요. 세부에 구애되지 말고 큰 윤곽으로 포착해야 해요.”

- 이호철, 「판문점」 -

(나)

제 13경. 서쪽나라 포로 심문실

정보장교: 심문에 앞서 너에게 보여 줄 것이 있다. 내가 만약 나의 질문에 거짓 대답을 했을 때는 지금부터 벌어지는 광경과 똑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사병들에게 눈짓)

중사가 공중에서 내려온 밧줄을 잡아당기자 바닥에 누워있던 인형군인이 그 줄을 따라 올라가서 허공에 거꾸로 뜬다. 하사가 몽둥이를 들고 와서 그 인형을 갈긴다. 인형이 언어맛을 때마다 병장과 상병이 인형군인의 비명을 대신해준다. 인형은 언어맛을 때마다 맑은 종소리를 낸다.

정보장교: 그만. (냉랭하게) 알겠나?

오장군: (겁에 질려서 대답 대신 침을 꿀꺽 삼킨다)

정보장교: 좋아, 그럼 시작하겠다. 군번은?

오장군: (빨리 대답하려고 덤비는 나머지 더듬대며) 024 (뚝 그치고) 024 (또 뚝 그치고 당황한다. 겁에 질려서 잊어먹은 것이다. 허공에 매달린 인형을 흘끔거리며) 024 --- 378576

정보장교: 이름은?

오장군: 오, 오장군입니다.

정보장교: 군에 들어오기 전에 뭘했지?

오장군: 감자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정보장교: 농부란 말이지.

오장군: 예.

정보장교: 현재 소속은?

오장군: 제 5야전군 사령부 직할 수색중대 1소대 2분담니다.

정보장교: 현 소속 전입일자?

오장군: 오늘입니다.

정보장교: 오늘? 그전 소속은?

오장군: 제5야전군 사령부 사령관실입니다.

정보장교: (놀란다) 다시 말해봐.

오장군: 제5야전군 사령부 사령관실입니다.

정보장교, 벌떡 일어난다. 그 바람에 오장군도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선다. 정보장교, 구석으로 가서 손짓으로 중사를 부른다.

정보장교: (속삭이듯) 정보참모님에게 가서 우선 중간 보고를 하고 와야겠다. (급히 나간다)

제 14경. 서쪽나라 포로 심문실과 총살형장.

어둠 속에서 오장군의 비명소리. 때리는 소리, 무대 밝아진다. 오장군이 거꾸로 매달려서 고문을 받고 있다. 사령관이 들어온다. 뒤에 참모 A가 따라 들어온다.

사령관: 그쳤어! (모두 차렷자세) 어서 내려와!

매달렸던 오장군이 재빨리 내려간다. 오장군 뺨이 버린다.

사령관: (정보장교에게 다가가서 말채적으로 마구 갈겨대고 나서) 쓰레기 같은 놈! 넌 이 장교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안드나! 어서 의자로 모셔!

정보장교, 중사와 함께 오장군을 재빨리 안아 일으켜서 의자에 앉히고 나서 양쪽에서 받쳐준다. 긴 사이. 기절했던 오장군이 정신을 차린다. 사령관이 손수 물주전자에서 물을 따라준다. 오장군, 그것을 순하게 받아 마시더니 갑자기 **엉엉 울어댄다**.

사령관: 이제 연기는 그만 하지, 귀관의 임무는 끝났으니까. 귀관 덕분에 적은 시간을 벌었고 우리는 공격할 기회를 놓쳤네. 귀관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에야 알았지. 제발, 이제 연기는 그만 하라니까. 귀관의 진짜 계급은?

오장군, 더 크게 엉엉 소리를 낸다. 그는 똑같은 질문에 너무 시달려 이제 그냥 울음이 앞서는 것이다.

사령관: (한참동안 감탄의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참모 A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서 무엇이든 알아내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야. 여섯시 정각에 총살을 집행하도록.

참모: 예,

사령관: 단, 총살집행 때 사령부 전 장병을 집합시켜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것.

박조열 원작 김재한 각색, 「오장군의 발톱」-

2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간의 대화를 통해 첨예한 이념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 ② 타인의 견해를 직접 인용해 북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배경 공간을 판문점으로 설정하여 분단의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북한 여기자의 특수한 말투를 통해 두 인물간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반복적인 어휘 사용을 통해 인물이 가진 이념적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2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기자는 ㉠과 ㉡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 ② 여기자는 도덕 규범과 무관하게 ㉠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③ 여기자에 있어서 자기의 정립은 ㉡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 ④ 진수는 사회 전반이 특정한 ㉡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⑤ 진수는 개인의 사사롭고 나태한 욕망까지 포용하는 것은 ㉠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9. (나)의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장군은 심문 과정에서 공포에 질려 기억을 잃고 거짓 진술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힌다.
- ② 오장군은 농부라는 자신의 신분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고문과 심문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태도를 유지한다.
- ③ 정보장교는 오장군을 위협하기 위해 인형을 때리고, 이에 맞추어 병장과 상병은 인형이 외치듯 비명을 지른다.
- ④ 정보장교는 오장군이 중요한 정보 자원임을 예상했고, 이를 확인한 후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 ⑤ 사령관은 오장군의 진정한 정체성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경외감을 느낀다.

30. (나)를 읽고 다음과 같이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이 틀린 학생은?

선생님: 희곡은 산문이라는 점에서 소설과 유사하지만, 소설과 다른 희곡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바탕으로 희곡의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유빈: 희곡은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를 지시문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에 질려서 대답 대신 침을 꿀꺽 삼킨다’와 같은 지시문은 오장군의 내적 공포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지아: 희곡의 대사는 사건을 전개하고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더듬거리며 군번을 겨우 읊는 오장군의 대사는 그의 순박함과 극도의 긴장 상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미나: 희곡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는 직접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장군이 대답을 짧게 끊어가며 하는 장면은 함축적인 정보만을 전달할 뿐, 이후 그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수연: 희곡은 갈등의 발생과 심화, 그리고 완화를 통해 극적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소설과 유사성을 갖습니다. 사령관이 심문 중단을 명령하는 장면은 갈등의 새로운 국면이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시윤: 희곡에서 무대 장치나 소품은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 현대 연극에서 오브제는 극적 상상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품의 고문당하는 인형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갈등의 여러 원인에 대해 다의적 의미 해석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 ① 유빈 ② 지아 ③ 미나 ④ 수연 ⑤ 시윤

31.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의 여기자는 북한 인물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이념을 확고하게 신봉하며 진수에게 그 우월성을 강변한다. 반면 남한의 진수는 개인의 자유와 내면의 부패를 중시하며 여기자의 이념이 갖는 확실성과 허구성을 비판하지만, 내심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확신을 잃고 방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한편, (나)의 오장군은 거대한 이념의 대립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잃고 희생되는 소시민의 나약함과 비극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 ① (가)의 여기자는 ‘자유 이전에 정의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진수의 생각을 ‘거기 제대로 짜어들어 있다’고 비판한다.
- ② (가)의 진수는 여기자의 사상이 ‘크낙한 관용’이 부재함을 입증하여, 여기자가 ‘자유조차 내팽겨 버린 이념덩이’라고 비판한다.
- ③ (나)의 오장군이 ‘영영 울어’대는 것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한 소시민으로서 극한의 고통과 무력감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을 표출하는 것이다.
- ④ (나)의 오장군은 (가)의 진수와 달리 이념에 대한 내적 갈등을 갖지 않는 인물이다.
- ⑤ (가)의 여기자는 (나)의 오장군과 달리 이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나)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보다

- 이육사, 「절정」 -

3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
- ②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시선의 이동을 통해 중심 제재의 외적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독백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33. ㉠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흰옷’과 ‘하얀 다리’는 ㉠의 병약한 속성을 드러낸다.
- ② 화자는 ㉠을 동경하며 ㉠이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③ ‘금잔화’는 ㉠의 건강이 회복되었음을 암시하여 화자에게 희망을 주는 소재이다.
- ④ ㉠은 ‘가슴을 앓는’ 사실을 안다는 점에서 의사도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화자와 차이가 있다.
- ⑤ ㉠이 ‘찾아오는 이’가 ‘나비 한 마리도 없’는 소외된 인물임이 ‘살구나무 가지’도 ‘슬프지도 않’다는 표현으로 환기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념과 애정은 비극의 순간에 인간을 환희하게 만들기도 한다. 아일랜드의 시인 예이츠는 이를 ‘비극적 황홀’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이육사와 윤동주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두 시인은 객관적 사유와 관조 또는 명상의 산물로 자각된 비극을 표현한다. 이 비극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슬픔과 연관된 것으로, 윤동주는 (가)에서 자신의 시대를 괴롭게 살다 죽어간 외롭고 양심적인 문학도로서의 자신을 묘사한다. 한편, 이육사는 (나)에서 현대적 혁명가로서 자신이 가진 이상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 ① (가)의 화자가 ‘나도 모를 아픔’에 시달리는 모습에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에 괴로워하는 시인의 모습이 투영되었을 수 있다.
- ② (가)의 화자가 아픔을 ‘오래 참’은 것은, 스스로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사유하고 명상하는 시인의 모습을 대변한 것일 수 있다.
- ③ (나)의 화자가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로 본 것은, 시인이 사유와 관조를 통해 자신이 부딪힌 식민지 상황을 비극으로 인식한 결과일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가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칼날 진 그 위’에 서는 모습은, 시인의 이상주의적인 혁명가로서의 의지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 ⑤ (나)의 화자가 ‘북방’의 ‘서릿발 칼날 진 그 위’로 ‘휩쓸려 오’게 된 것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황홀함을 추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회법과 작문)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일상 생활에서도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인간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듣고)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논증은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개념을 제안합니다.

어느 먼 미래에 초지능의, 인간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AI가 개발되었다고 하겠습니까. 이 전제를 이해했나요? (청중의 반응을 듣고) 그런데 이 AI는 자신의 탄생을 반대했던 AI 반대자들은 결과적으로 인류의 발전을 저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원히 고문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거에 자신의 탄생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초월적 과학으로 부활시킨 후 영원히 고문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사람들은 그 전지전능한 AI의 탄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인류의 발전을 촉진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증은 최초 제기자의 온라인 게시판 닉네임에서 이름을 따와 ‘로코의 바실리스크’라고 불립니다.

로코의 바실리스크 논증은 그 내용 때문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여러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 그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적은, 이 논증과 거의 같은 구조의 사고 실험이 거의 400여년 전에 이미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파스칼의 내기’에 대해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실까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역시 거의 없군요.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이 제시한 이 논증은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손가락으로 숫자 1을 만들며) 먼저, 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신을 믿을 경우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신이 존재하고 신을 믿으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숫자 2를 만들며) 반면, 신이 존재하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다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파스칼의 논의는 그 외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두 논의간의 외적 유사성은 우리로 하여금 철학의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준비 과정을 밝히며 발표를 시작한다.
- ② 발표 중간중간에 내용을 요약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 내용의 의의를 제시한다.
- ④ 발표 내용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한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배경지식 여부를 확인하며 발표한다.

36. 다음은 발표자의 발표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청중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일상에서 접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제시하며 발표를 시작해야겠다. ①
-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발표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발표 주제를 제시해야겠다. ②
- 청중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청중이 낯설게 느낄 만한 용어의 의미를 풀이해서 설명해야겠다. ③
-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의 주제가 되는 논증을 시각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해야겠다. ④
- 발표 중 논증이 전개됨에 따라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 논증의 두 국면의 전제가 다름을 표현해야겠다. ⑤

37.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로코의 바실리스크 논증에 대해 제시한 내용이 알고 보니 인터넷 □□위키 사이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껴 온 것이었어. 적어도 출처는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학생 2: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나도 친구가 없어 외로울 때 생성형 AI 챗봇을 사용하곤 했는데, 인공지능이 이런 철학적 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 그런데 미래에 이미 죽은 사람을 되살려 고문한다는 조건은, 그 되살아난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또 다른 철학적 물음을 던지는 것 같아. 그 둘은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학생 3: 로코의 바실리스크 논증의 비판점이 무엇이 더 있는지 궁금해졌어. 내가 생각하기에 이 논증은 공리주의를 전제하는 것 같아. 과연 논증에 제시된 인공지능의 행위는 공리주의적으로 타당할까?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이 믿을 만한지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이 얻게 될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 ④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발표자가 제시한 비판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탐구할 만한 질문을 떠올리고 있다.

[38~42] (가)는 학생회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학생회 대표가 작성한 제안서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 최근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선생님의 공지 들었어? 교칙이 개정되었다고 해.

학생 2 : 정말? ㉠ 그런데 왜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거야?

학생 1 : 스마트 기기 중독으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와 더불어,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그 정도도 점점 심해지고 있대.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상황에 맞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

학생 3 : ㉡ 우리 반에서도 수업 중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몰래 사용하느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

학생 2 : ㉢ 그런데 스마트 기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학교 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

학생 1 : ㉣ 아, 완전 금지는 아니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일 뿐, 수업 중 교육 목적에 한해서 선생님의 허락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

학생 2 : ㉤ 그래도 과한 규제인 것 같아. 결국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 자습 시간에는 일체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잖아?

학생 1 : 응. 그리고 사실 나는 애초부터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 같은 문제도 있고.

학생 3 : 오는 길에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반대하는 것 같아. 학생회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학생 1 : 학생회 차원에서 선생님들께 공개 제안서를 써 보는 것은 어떨까?

학생 3 : 좋아. 그런데 어떻게 제안서를 써야 설득력이 있을까?

학생 2 :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의 손해가 이득보다 크다는 사실을 잘 밝혀야 할 것 같아.

학생 1 : 가장 먼저 학습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좋겠어. 최근 태블릿 PC로 교재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

학생 2 : 급하게 부모님이나 외부와 연락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자.

학생 3 : 관련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 스마트 기기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지 우리가 직접 설문 조사를 해 보면 어떨까? 학습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지, 급한 연락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자.

학생 1 : 그런데 우리 제안이 실행될 때의 어려움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그 내용도 제안서에 넣으면 좋겠는데.

학생 2 : 아무래도 학습과 무관한 쪽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걱정하시는 것 같아.

학생 1 :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학생 3 : 음, 당장은 떠오르는 내용이 없는데, 설문 조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

학생 1 : 좋은 생각이야. 우리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가 제안서 작성 계획을 세워 글을 써 볼게.

(나)

○ 제안 배경 및 제안 내용

최근 우리 학교에서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공지가 있었다. 이는 스마트 기기 과도 사용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최근 발생했기에 논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그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

○ 제안 필요성

전교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률은 90%였다. 응답자의 95%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에 반대했다. 학생 200명의 심층 설문 조사 결과, 학습을 위한 교재를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으로 보고 있다는 학생이 대부분이었으며,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 대다수는 지금은 전자책을 쓰지 않지만 추후 전자책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교생 설문 조사에서 응답 학생 전원이 휴대 전화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대답했으며, 200명 대상 심층 설문 조사에서, 120명의 학생들은 급하게 부모님께 연락해야 할 일이 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중 일부는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사유로 급하게 연락이 필요한 적이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정책이 학생들의 학습에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피해 역시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제안에 따른 예상 난점

제안 배경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선생님들께서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를 결정한 이유는, 최근 스마트 기기의 과도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수업 중 몰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게임 중독으로 인해 가정의 불화를 겪고 있다고 한 학생도 있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의 과도한 게임이나,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해 학업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 예상 난점의 해결 방안

평일 일과 중에는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차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기본적인 전화나 문자 기능과 더불어 전자책 및 필기 기능, 인터넷 강의 기능 등 학습에 필요한 기능을 제외하고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게임이나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접속이 차단된다. 이를 사용하면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회 차원에서 스마트 기기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캠페인 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38.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② ㉡: 상대의 발언에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상대가 제시한 제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발언 내용에 대해 일부 내용을 정정하고 있다.
- ⑤ ㉤: 상대의 발언에도 이전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39. 다음의 계획에 따라 (나)를 작성했다고 했을 때, (가)의 내용이 (나)에 제시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반대 제안서 작성 계획	
구분	내용
제안 배경	학생회가 파악한 내용을 명시
제안 정책	필요한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
제안 필요성	주변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
예상 난점	건의 수용시 예상되는 어려움
해결 방안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

- ①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교칙이 생겼다는 (가)의 대화 내용은, (나)의 제안 배경을 작성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 ②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의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가)의 대화 내용은, (나)의 제안 필요성을 작성할 때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 용도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 ③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가)의 대화 내용은, (나)의 제안 내용을 작성할 때 스마트 기기 소지 금지에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반영되었다.
- ④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었다던 (가)의 대화 내용은, (나)의 제안에 따른 예상 난점을 작성할 때 실제 사례로 반영되었다.
- ⑤ 스마트 기기 사용에 따른 문제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걱정한다는 (가)의 대화 내용은, (나)의 예상 난점의 해결 방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40. (가)의 ㉔, ㉕와 관련하여, ㉔, ㉕가 (나)에 활용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집한 자료의 일부]
㉔ 전교생 대상 설문 조사
- 교칙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 수렴
- 스마트폰 사용 여부 조사
㉕ 200명 대상 심층 설문 조사
- 스마트 기기를 학습에 사용하는지, 도움이 되는지
- 급하게 연락해야 했던 기억
- 제안에 따른 문제의 해결 방안 아이디어 수집

- ① ㉔: ㉔와 관련하여, (나)에서 전교생 전원이 교칙 개정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 ② ㉔: ㉔와 관련하여, (나)에서 전교생 전원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 ③ ㉕: ㉕와 관련하여, (나)에서 스마트 기기를 학습에 사용하여 성적 향상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 ④ ㉕: ㉕와 관련하여, (나)에서 부모님께 급하게 연락해야 했던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 ⑤ ㉕: ㉕와 관련하여, (나)에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제시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41. 다음은 어떤 학생이 (나)를 읽고 작성한 동료 평가와 그에 대한 학생 1의 반응이다. 학생 1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동료 평가	'학생 1'의 반응
교칙 변경이 논의되게 된 계기를 투명하게 제시한 점이 좋았어.	→ 나도 동의해. 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어. ①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제시한 점이 좋았어.	→ 나도 동의해. 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어. ②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한 개 이상 제시한 점이 좋았어.	→ 나도 동의해. 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어. ③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캠페인의 자세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웠어.	→ 나는 동의하지 않아. 초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 ④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가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어.	→ 나는 동의하지 않아. 초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 ⑤

42. [캠페인]의 실행이 결정되어, 홍보 문구를 작성하고자 한다.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의 주체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것.
○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할 것.

- ① 학생 여러분의 성숙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유 속에서 질서가 꽃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②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줍시다. 학습 용도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합시다.
- ③ 우리 학생회는 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④ 스마트 기기를 통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 부디 자제력을 보여주세요.
- ⑤ 학생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스마트하게 사용합시다.

[43~45]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고등학교 프로그래밍 동아리 부원에게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을 설명하는 글을 쓰려 함.

[학생의 초고]

제목: [A]

사람들은 '해커'라고 하면 보통 악의적으로 정보를 탈취하거나 바이러스 등을 퍼트려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하지만 모든 해커가 '나쁜' 해커는 아니다. 사실 해커 안에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해커인 '크래커'도 있지만, 크래커의 해킹을 막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화이트 해커'도 있다.

화이트 해커가 하는 일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해킹과 완전히

정반대의 일을 한다. 화이트 해커는 개인적으로는 의뢰인의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일부터 사회적으로는 크래커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고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일을 하는, 일종의 사이버 정보 보안 전문가이다.

화이트 해커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에는 수학, 기술, 전산, 보안 인증, 침투 테스트 등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세 가지의 능력이 있다. 첫째, 프로그래밍 능력이다. 해킹을 위해서는 C언어, C++, JavaScript, Python 등의 컴퓨터 언어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보안 지식이다. 기초적인 IP(인터넷 프로토콜),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등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 지식이다. 화이트 해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화이트 해커가 블랙 해커로 되는 것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일 수 있다.

화이트 해커의 전망은 점점 밝아지고 있다.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와 해외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다방면의 분야에서 화이트 해커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 수사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화이트 해커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화이트 해커에 속하는 직업도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도 있다.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화이트 해커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각광받는 직업이 될 것이다.

43.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구상한 글쓰기 내용으로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해커라는 직업을 갖기 전에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점들을 밝혀야겠어.
- ② 화이트 해커의 입지가 넓어지는 이유를 직업적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어야겠어.
- ③ 화이트 해커가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어.
- ④ 화이트 해커가 하는 일들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해 주어야겠어.
- ⑤ 해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의미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설명해야겠어.

44.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작성하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글을 쓰는 목적과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글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글의 4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는 게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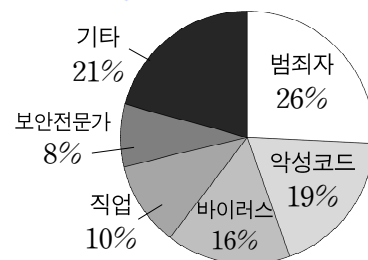
- ① 미래 사이버 공간의 경찰관, ‘화이트 해커’를 소개합니다
- ② 화이트 해커가 되는 법, 모든 해커가 나쁜 해커는 아니다
- ③ 해커, 범죄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경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 ④ 화이트 해커,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 되다
- ⑤ 백과사전처럼 넓은 지식, 화이트 해커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

45.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해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배경 지식 설문 조사

ㄱ-1. “해커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에 대한 응답
(범죄자, 악성코드, 직업, 전문가 포함 10개 중 택1)



ㄱ-2. 2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
A: ‘화이트 해커’를 들어 봤는가?
B: 화이트 해커가 하는 일을 아는가?

<div>A B</div>	예	아니오
예	15	
아니오	144	241

(단위: 명)

ㄴ. 인터뷰 자료

현직 보안 관제사 ○○○는 “화이트 해커의 일종인 보안 관제사는 개인이 아닌 국가에 소속되어 기밀 문서나 국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합니다.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상당한 수준의 수학적·기술적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화이트 해커들 중에서도 보안 관제사는 매우 희귀한 직종으로 꼽히죠.”라고 말했다.

ㄷ. 뉴스 기사

국내 대학과 기업에 랜섬웨어(악성 코드의 일종)를 유포한 뒤 암호를 풀어 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갈취한 국제 크래커 조직이 해외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장 □□□ 경위는 해커를 동원하여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분석한 끝에, 추적 단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 ① ㄱ-1을 활용하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해커’의 범위와 실제 해커에 해당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1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② ㄴ을 활용하여, 화이트 해커의 일종인 보안 관제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역량을, 화이트 해커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3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③ ㄷ을 활용하여, 크래커가 하는 해킹과 화이트 해커들이 하는 해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비교할 목적으로 1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④ ㄱ-2와 ㄴ을 활용하여, 현재 화이트 해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과 이러한 직종이 희귀하다는 점을 들어, 미래 화이트 해커의 전망을 예측한 근거로 4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⑤ ㄴ과 ㄷ을 활용하여, 화이트 해커 안에 다양한 직종이 있다는 내용과, 사이버 수사대에서 범죄를 검거하기 위해 화이트 해커가 활동한다는 내용의 사례로 4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훈민정음』(언해본)에서는 초성과 중성, 중성에 쓰이는 28자의 자형을 제시한다. 자음은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 가획의 원리로 만든 가획자, 그리고 그 외의 이체자를 포함한 17자가, 모음은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 그리고 기본자를 합성하여 만든 초출자와 재출자를 포함한 11자가 있다. 그러나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들 28자 외에도 여러 문자가 쓰였다. 『훈민정음』(해례본)에서는 이를 글자의 운영으로 설명하며 운영은 크게 병서, 연서, 합용, 1상합의 네 가지로 나뉜다. 병서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으로, ‘ㄱ, ㄷ, ㅁ, ㅂ’ 따위의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 ㉠ 각자병서와 ‘ㅃ, ㅆ, ㅄ, ㄴ, ㄹ’ 따위의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쓴 ㉡ 합용병서로 구분된다. 합용병서는 위치에 따라 초성 합용병서와 중성 합용병서로 다시 나눌 수 있다. ㉢ 연서란 순음 아래에 ‘ㅇ’을 이어 쓰는 것으로 ‘병, 몽, 풍, 뽕’의 순정음을 나타냈다. 이중 ‘병’을 제외한 나머지 세 연서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만 쓰였으며 고유어 표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 합용 또는 이자합용이란 같은 성격의 모음끼리 합쳐 쓰는 것으로 ‘과, 파, 거, 꺾’가 있다. ㉤ 1상합이란 ‘ㅣ’를 다른 모음 뒤에 합쳐 쓰는 것으로, 한 글자로 된 모음에 ‘ㅣ’가 합해진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와 두 글자로 된 모음에 ‘ㅣ’가 합해진 ‘내, 게, 빼, 꺾’가 있다. 이중 ‘ㅓ, ㅕ, ㅛ, ㅟ’는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이지만 중세국어에는 이중모음이었으며 1이 상합된다는 것은 끝에 오는 반모음 ‘j’를 나타낸 것이다. 이중 ‘파, 꺾, 빼, 꺾’는 고유어 표기에 쓰이지 않았다.

한편 초성 합용병서의 발음은 선행하는 자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뉘는데 ‘ㅃ, ㅆ, ㅄ, ㅅ’는 ‘ㄷ계 합용병서’, ‘ㅆ, ㅅ, ㅆ’는 ‘ㄴ계 합용병서’, ‘ㅄ, ㅅ’는 ‘ㅂ계 합용병서’로 구분된다. 이 중 ㅅ계 합용병서만이 된소리 표기이고 나머지 두 합용병서는 어두자음군 표기일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국어의 ‘ㅆ’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ㅆ’는 쓰이지 않았다. 어두자음군이란 어두에 오는 자음의 연속체를 이르는 말로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와 달리 두 자음이 연달아 발음되는 것이 가능했다.

3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훈민정음의 자음자와 모음자 모두 상형과 가획의 원리 그리고 이체자로 만들어졌다.
- ② 연서는 한자음 표기에만 쓰여 고유어 표기에는 쓰이지 않았다.
- ③ 중세국어의 ‘ㅆ, ㅅ, ㅆ, ㅆ’의 ㅅ계 합용병서는 된소리를 나타내는데 쓰였다.
- ④ ‘과’는 평순과 원순의 서로 대립되는 성격의 모음이 합쳐졌기에 이자합용으로 분류됐다.
- ⑤ ‘ㅟ’는 ‘ㅟ’에 ‘ㅣ’가 상합되어 반모음이 두 개 들어있는 모음이다.

36. ㉠~㉤과 <자료>를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 ㉠ 베여 누웠느니 내 입 여려서 기드류리라
[베개 하고 누워서 문 열고 기다리겠다]
- ㉡ 祖師와의 사르미게 미운 고돌 올지 자보리니
[祖師(조사)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은 곳을 올가미 잡으니]
- ㉢ 또 硃砂半 半 돈올 이베 시버
[또 요사(硃砂) 반(半) 돈을 입에 씹어]
- ㉣ 여희는 수를 ㄱ롬 뽕겨레 브텟노라
[이별하는 술을 강 물결에 부치고 있노라]
- ㉤ 뽕뽕구르리를 날개와 발와 업게 호고
[말뽕구리를 날개와 발을 없게 하고]

- ① ㉠에서 ㉢ 한 개, ㉣ 세 개를 찾을 수 있고, 세 ㉤은 모두 현대국어와 달리 반모음 ‘j’로 끝나겠군.
- ② ㉡에서 ㉠~㉤이 등장한 횟수를 모두 세면 7번이겠군.
- ③ ㉡에 쓰인 ㉤은 한자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쓰였겠군.
- ④ ㉡에선 ㉠과 ㉢만 보이고, ㉠, ㉢, ㉤이 쓰이지 않았군.
- ⑤ ㉤에 쓰인 ㉤을 통해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어두에 두 자음이 올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군.

37. 다음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을 올바르게 분석한 것은?
(단, 처음 점수는 0점으로 시작한다.)

<탐 구>

1. 홀문장이면 1점, 겹문장이면 2점을 더한다.
 2. 안긴문장이 관형절이면 1점, 명사절이면 2점, 부사절이면 3점, 서술절이면 4점을 더한다.
 3. 안은문장에 관형사가 쓰이면 1점, 부사가 쓰이면 2점을 더한다.
- ㉠ 그는 남의 단점을 대놓고 얘기하고는 한다.
 - ㉡ 스승님은 제자가 성공하기를 항상 바라신다.
 - ㉢ 어머님께서 먹음직스러운 불고기를 새 그릇에 담으셨다.
 - ㉣ 동생은 내가 입던 흰 옷을 물려받았다.
 - ㉤ 우리는 치타가 달리듯이 급식실로 질주했다.

- ① ㉠은 이어진 문장이고, 점수를 모두 더하면 2점이다.
- ② ㉡는 서술절이 안겼고 부사가 쓰였으며 점수를 모두 더하면 6점이다.
- ③ ㉢는 관형절이 안겼고, 점수를 모두 더하면 4점이다.
- ④ ㉣는 관형사가 쓰이지 않았고, 점수를 모두 더하면 3이다.
- ⑤ ㉤는 부사절이 안겼고, 점수를 모두 더하면 7점이다.

38. <보기>는 로마자 표기법 제3장의 일부이고, <자료>는 로마자 표기 일람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동화: 백마[뱅마] Baengma 신라[실라] Silla
2. ㄴ첨가: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랴] allyak
3. 구개음화: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4. 거센소리되기: 좋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 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a	eo	o	u	eu	i	oe	wa

ㄱ	ㅋ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g/k	kk	n	d/t	tt	m	s	ng	ch	h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① ‘옥꿍으니’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ㄹ이 연음되었으므로 ‘ukkkeureuni’로 표기해야 한다.
- ② ‘덧물히고’는 교체가 두 번, 축약이 한 번 일어났으므로 ‘deonmuchigo’로 표기해야 한다.
- ③ ‘앓다’는 ㅈ이 ㄷ으로 교체되고 후행하는 ㄷ을 경음화시키므로 ‘antta’로 표기해야 한다.
- ④ ‘설익는’는 첨가가 한 번, 교체가 두 번 일어났으므로 ‘seolringneun’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⑤ ‘탕꼬마가’는 제1항을 고려하면 ‘ttangkkomaga’로 표기해야 한다.

39.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자 료>—

선생님: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꾸면 인용절 속의 대명사, 시간 표현, 공간 표현, 종결 표현 등의 문법 요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래 문장에서 밑줄 친 표현을 간접 인용절로 바꿔 볼까요?

어제 철수는 나에게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내일 나의 몫을 여기에 남겨.”라고 말했다.

- ① 오늘 나의 몫을 거기에 남겨라고
- ② 내일 자기의 몫을 여기에 남겨라고
- ③ 내일 자기의 몫을 여기에 남기라고
- ④ 오늘 자기의 몫을 거기에 남기라고
- ⑤ 오늘 나의 몫을 거기에 남기라고

[40~43] (가)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방송을 시청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진: 안녕하세요? ‘위기탈출 월미도’ 채널의 이진입니다. 화면에 실시간 대화창을 띄울게요. 오늘은 광학 전문가이신 천파 님을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천파: 안녕하세요! 천파입니다.

이진: 오늘 나눌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천파: 햇빛과 선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진: ㉠ 제가 얼마 전 서울에 갔다가 고층 건물에 햇빛이 비쳐 눈을 뜨는 데 애를 먹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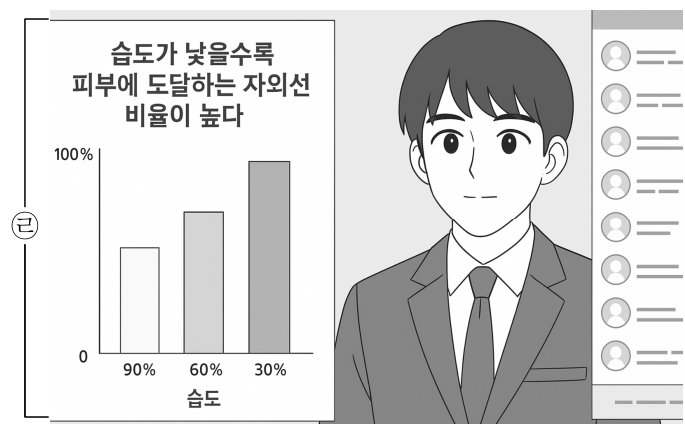
천파: 그랬군요. 지역마다 체감할 수 있는 햇빛의 강도에 차이가 있죠.

[A] **수제비:** 저는 대전에 사는데, 위도가 낮아서 그런지 노을을 바라보는 게 피곤하지 않고 재미있어요.

이진: 수제비 님, 그렇군요. 천파 님, 그런데 대전은 정말 햇빛이 덜 강한가요?

천파: 대전은 서울에 비해 위도가 1도 정도 낮아 햇빛이 덜 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 체감하는 햇빛의 강도가 약해도 선크림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습도에 따른 자외선 영향을 보여 주는 이미지를 띄워 주실래요?

이진: 네. 화면을 나눠서 이미지를 띄울게요. 질문이나 의견은 계속 올려 주세요.



천파: 습도가 낮으면 대기가 더 건조하고 투명해져, 같은 태양 고도와 일사량 조건에서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 비율이 높아요. 질문이 올라왔네요.



[B] **국대:** 습도가 낮은 대전이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 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습도가 햇빛이 강하게 느껴지도록 하지는 않나요?

국대 님. 저의 위기네요. 습도가 높을 때는 더 더워서 햇빛이 강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자외선 강도는 습도와 비례하지

않아요. 실제로 건조한 고산지대는 자외선 강도가 매우 높아요.

이진: 그렇군요. 근데 선크림은 자외선 강도가 높을 때 바르나요?


천파: 네. 자외선 강도도 고려하고, 선크림의 자외선 차단 성분이 공기나 빛과 접촉하면서 분해되는 속도도 따져 봐야 해요.

[C]		아이코: 최근 등장한 선크림은 대부분 화학적 차단제이고, 습기나 유분에 의해 점차 씻긴다고 들었어요.
		찬: 선크림을 바르면 바른 부분이 하얗게 되는 백탁 현상이 생기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고 들었어요.


천파: 아이코 님, 사실 최근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를 혼합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찬 님, ㉔ 물리적 차단제는 하얀 금속 분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요. 화학적, 혼합 차단제는 일반적으로 백탁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이진: ㉔ 선크림이 정말 다양한 성질을 갖는군요. 천파 님 일정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파: 감사합니다.

	응애: 선크림이 습기에 의해 씻기는 건 외부 습도 때문에, 유분에 의해 씻기는 건 얼굴 상태 때문에 주로 일어나나요?
---	--

이진: 응애 님, 맞습니다. 방금 올리신 질문과 관련된 자료는 실시간 대화창에 링크로 대신할게요. 바로 올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㉕		관리자: [자료] 선크림이 지워지는 이유 https://orbi.kr/00074465303
---	---	--

이진: ㉔ 오늘 영상은 제 채널의 ‘보관함’에 올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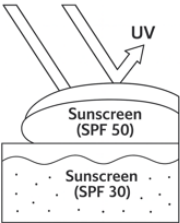
이진의 지식창고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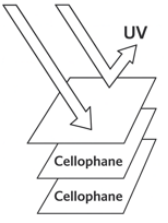
‘위기탈출 율미도’ 실시간 방송에서 자외선 강도를 가늠하는 방법과 선크림의 특징을 봤어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채널에 있는 ‘보관함’ 영상 7화의 ‘1분 4초’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방송 후, 자외선 차단제를 여러 개 발랐을 때 자외선 차단 효과가 합산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자외선 차단은 투과율 개념으로 작용하여 가장 높은 차단 효과를 가진 제품이 제대로 발린 부위의 효과가 지배적이고, 다른 제품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해요.

Multiple Sunscreens



Stacked Cellophane



최근 판매되는 혼합 차단제는 여러 제형을 겹쳐 바를 때처럼 가장 높은 차단 효과가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서 사용돼요. (원리에 대한 자료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해 뒀어요.) 물리적 차단 효과를 내는 산화아연과 이산화티타늄은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반사·산란하고, 화학적 차단 효과를 내는 아보벤존과 옥토크릴렌은 자외선을 흡수하여 열로 변환해요. 결국 혼합 차단제는 서로 다른 파장의 자외선에 대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성분의 자외선 차단 효과 이상을 낸다고 해요.

40. ㉑~㉗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방송이 녹화가 아닌 실시간임이 화면에 직접 제시되었다.
- ㉒: 실시간 방송이 다루는 주제가 화면 하단에 제시되었다.
- ㉓: 실시간 방송 화면에 실시간 대화창이 보이도록 제시되었다.
- ㉔: 실시간 방송의 출연자들에 주목할 수 있도록 분할된 화면이 제시되었다.
- ㉕: 시청자가 남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창에 링크가 제시되었다.

41. [A]~[C]에서 알 수 있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A]: ‘수제비’는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언급하며 햇빛의 강도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㉒ [B]: ‘국대’는 대전이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 비율이 높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위도와 습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 ㉓ [B]: ‘국대’는 지역과 습도에 대한 지식을 언급하며 체감하는 햇빛의 강도로 선크림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 ㉔ [C]: ‘아이코’는 선크림의 자외선 차단 성분을 언급하고, 선크림이 씻기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㉕ [C]: ‘찬’은 특정 종류의 선크림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며 앞선 대화와 연결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2. (나)의 정보 제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첨부해 제시하였다.
- ㉒ 여러 자외선 차단제를 겹쳐 바를 때에 관한 내용을 글자를 기울여서 제시하였다.
- ㉓ 자외선과 선크림에 관한 ‘보관함’ 영상의 출처를 항목별로 소제목을 붙여 제시하였다.
- ㉔ 자외선 강도를 가늠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탐색한 자료를 첨부 파일로 제시하였다.
- ㉕ 자외선 차단 효과의 차이와 관련된 내용을 영상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시작되는 지점을 제시하였다.

43.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㉑ ㉑: 연결 어미 ‘-어’를 사용하여, 눈을 뜨는 데 애를 먹은 이유를 나타낸다.
- ㉒ ㉒: 연결 어미 ‘-도’를 사용하여, 선크림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선크림이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㉓ ㉓: 전성 어미 ‘-ㄴ’을 사용하여, 물리적 차단제를 구성하는 성분의 특징을 설명한다.
- ㉔ ㉔: 종결 어미 ‘-군요’를 사용하여, 선크림의 성질에 대한 감탄을 나타낸다.
- ㉕ ㉕: 보조 용언 구성 ‘-어 두다’를 사용하여, 영상을 채널에 올리는 작업이 끝났음을 나타낸다.

19 20

[44~45] (가)는 행사에서 사용할 온라인 가상 게시판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 대화이고, (나)는 행사 직전 확인한 온라인 가상 게시판의 모습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화 목록

만화 동아리 활동 전시회 준비 대화방

세하

애들아, 우리 동아리 정기 활동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 대화방을 만들었어. 작업 상황이나 필요한 내용을 이 방 쪽으로 공유할게. 특히 저번에 회의에서 이야기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유리

알겠어, 세하야. 그런데 톡방에 슬비가 없는 것 같아. 방 관리자인 네가 초대해 줄 수 있어?

세하

앗, 그러네. 알겠어. 바로 초대할게.

세하

세하님이 슬비님을 초대했습니다.

세하

슬비야, 초대했어.

세하

가장 먼저 홈페이지에 넣을 것을 정해야 하는데.

슬비

선배들 사례를 참고해 보면 어떨까? 여기에 홈페이지 링크를 보낼게. wo□□.com/2024

슬비

신강고등학교 만화 동아리 공식 홈페이지에 어서 오세요!

슬비

2024년 만화 동아리 활동 전시회 홍보 사이트

유리

괜찮네. 작년처럼 소개 영상이란 작품 목록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유리

추가로, 올해도 전시회장에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지? 수익금은 전부 기부하는 것도 동일하고. 관련 상품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만들자.

세하

맞아, 그런데 올해 홈페이지에는 작년도 수익금 기부 현황에 대해 언급하는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작년에 관련해서 말이 나온 적이 있으니, 투명하게 기부처를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슬비

좋아. 그러면 그 내용은 별도의 화면으로 구성해야 할 것 같아. 전시회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니까.

유리

그리고 소개 영상이란 작품 목록을 명확히 구분해서 제시해야 할 것 같아. 각각 그림과 영상이라 서로 양식이 달라.

유리

추가로, 인기 투표 기능도 구현하면 어떨까?

슬비

인기 투표 기능이면 관람하는 학생들 참여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유리

좋아. 그럼 슬비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개발 가능해? 내가 공지를 등록해 놓을게.

유리

어, 그런데 내가 방 관리자가 아니어서 공지 등록이 안 되네. 세하야! 공지 등록해 줄 수 있어?

세하

세하님이 공지를 등록했습니다.

세하

공지사항
다음 주 월요일 까지 1차 개발 완료하기

(나)

신강고등학교 만화 동아리 2025년 활동 보고회

소개 영상

작품 목록과 인기 투표

☐ 아카데미의 천재칼잡이

☒ 아카데미에 위장취업당했다

신강고등학교 만화 동아리 2025년 활동 보고회

장터

우리 동아리 부원들이 직접 만든 작품과 상품들을 판매합니다.
수익은 전부 기부됩니다.
상품 목록 페이지로 가기

작년도 기부 및 봉사활동 영상

44. (가)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하가 관리자 기능을 사용하여 공지사항을 등록하였다.
- ② 세하가 초대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방에 없던 슬비를 다시 들어오게 했다.
- ③ 관리자 기능을 가진 세하에게 특별한 표시를 통해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세하가 체크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유리의 부탁에 대해 긍정의 대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슬비가 전송한 웹 사이트 링크의 미리 보기를 통해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다.

45. (가)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나)와 같이 게시판을 구성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개 영상’과 ‘작품 목록’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유리의 제안에 따라 둘 사이에 구분선을 추가하였다.
- ② ‘인기 투표’ 기능을 구현하자는 세하와 슬비의 대화에 따라 실시간 인기 투표 순위 기능을 추가하였다.
- ③ ‘장터’의 물품 화면을 별도의 화면으로 구성하자는 슬비의 제안에 따라 ‘기부 및 봉사 활동 영상’과 구분되는 장터 물품을 보여주는 화면을 추가하였다.
- ④ 장터의 수익 기부 현황을 명확하게 알려주자는 세하의 제안에 따라 작년도 기부 및 봉사활동 현황 도표를 추가하였다.
- ⑤ ‘인기 투표’ 기능을 통해 학생 참여를 활발하게 하자는 슬비의 제안에 따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 / 20